

# 지속가능한 낙농육우산업 정책 비전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 農의 실증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와 무소속 대선후보들이 인심잡기에 한창이다. 언론은 연일 대선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농업·농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본격적인 표밭 훑기에 나서고 있지만 농촌현장을 찾거나 농업·농촌과 관련된 행보는 가뭇에 콩 나듯 빈약하기 짝이 없다.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체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은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 대통령선거에서까지 홀대를 받아야 할 만큼 초라하지는 않다. 오히려 농업을 두 손으로 떠받들어도 부족하면 부족했지 넘쳐나지 않는 게 바로 농업이고 농민이다.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는 296만2,000명이다. 이 정도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다. 그런데도 농업과 농촌은 대선후보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려낼 대안을 제시하는데 두 팔을 걷고 직접 나서야 한다.

올해 세계적인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는 먹을거리, 즉 농업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작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제곡물시장은 투기자본까지 가세해 요동을 치고, 국제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 파장은 식료품값 인상을 통해 소비자 식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애그플레이션 파고가 지구촌을 급습하고 있다. 올해 국내 농산물 작황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러다가는 그동안 넘쳐나서 고민을 하던 쌀마저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그플레이션은 특히 축산농가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한·미, 한·EU FTA 등의 발효로 값싼 외국산 축산물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가격 폭등 과장으로 배합사료가격마저 급등해 국내 축산농가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와 무소속 대선후보들은 농촌현장을 찾아 국내 농민들, 특히 축산농가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대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

한·미, 한·EU FTA 발효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바로 낙농업이다. 미국, EU와 FT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낙농품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를 폐지, 국내 낙농업은 흰우유시장에만 매달려야 하는 족쇄를 차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한다면 국내 낙농업은 희망을 찾기 어렵다.

낙농업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낙농업은 가장 목가적 풍경을 자랑하는 친환경적 축산업이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낙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은 R&D(연구 개발)투자 확대, 안정적이고 원활한 조사료공급체계 구축, 수급안정대책과 관련한 실질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 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낙농부문 R&D투자는 생산성 향상, 낙농기자재 개발, 환경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 먼저 생산성 향상은 FTA시대를 맞아 국내 낙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하는 과제다. 낙농의 대외경쟁력 확보는 젖소의 산유능력을 높이고, 젖소의 경제수명을 연장시키고, 사료효율을 높이고, 안전하고 기능성까지 갖춘 고품질 우



유를 생산하고, 조사료 생산비를 낮출 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에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R&D투자가 반드시 수반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낙농업은 기자재산업과 동반하여 발전하는 하는 산업이다. 낙농업이 축산업의 꽃으로 불리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낙농업은 기자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산업이다. 낙농기자재 개발에 R&D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낙농가만이 아니라 국내 축산농가들이 양축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과제가 가축분뇨처리, 바로 환경문제이다.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자원이 되기도 하고, 환경 오염원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 축산농가들이 모두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데 나서고 있지만 처리기술이 아직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다보니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자 취급을 받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가축분뇨를 손쉽게 유기질 비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양축현장에 보급되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낙농기자재 개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 낙농품시장 확대가 필요”

####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반추동물인 젖소를 사육하는 낙농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질의 조사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국내외 조사료 수급상황은 여의치 않다.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등 조사료 수출국의 조사료 재배면적이 감소, 조사료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품귀현상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국내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낙농가들의 고통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국내 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해외 조사료 생산, 해외 조사료 유통사업 진출 등을 통해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 낙농품시장 확대대책이 절실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미, 한·EU FTA 발효로 국내 낙농업은 낙농가 공품시장을 수입품에 다 내주고 흰우유시장에만 매달려야 하는 딱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할 경우 국내 낙농업의 앞날은 밝다. 시장이 늘어나지 않으면 해당산업은 존속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핵심적인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인 낙농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내산 낙농품시장을 키울 수 없

다. 국내 낙농가들이 생산한 원유가 흰우유만이 아니라 치즈 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발하게 가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강조한 R&D투자가 확대돼 원유생산비를 낮추고, 세계적인 수준의 치즈생산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강력한 정책적 의지도 뒤따라야 한다. 흰우유시장만이 아니라 가공품시장까지도 국산으로 대체시켜나가겠다는 의지가 정책에 심어지고, 나아가 해외시장도 공략하겠다는 정책적 비전이 제시되어야만 국내 낙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산원유를 치즈 등 고부가가치 낙농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쿼터를 늘리거나 줄이는 임시방편적 낙농정책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밖에도 낙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동안 논의가 진행되어온 전국단위 쿼터제와 원유가격안정체계 개편, 한 때 시행을 했다가 퇴보한 집유일원화 문제도 낙농산업의 대승적 발전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낙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정책제시를 기대한다. ☺

